

김포 국지도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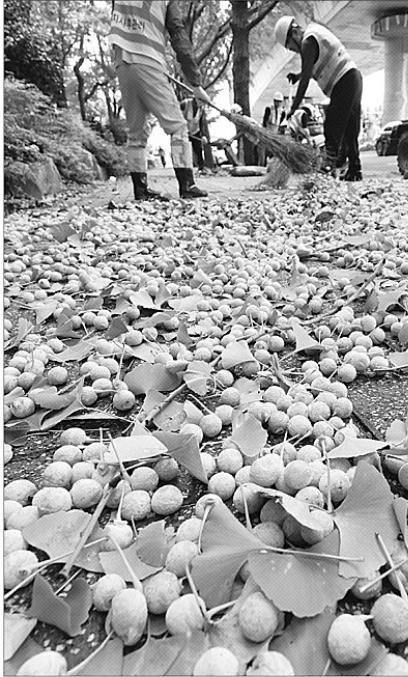
경기도, 오늘 7.88km 개통... 교통량 분산·물류비 절감

경기 김포시 대곶면, 양촌읍을 거쳐 강화도와 인천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84호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건설공사'가 최종 완공해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

차로), 교차로 8곳(지하차도 1곳), 교량 7곳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38억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한 2021년 12월에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 간 구간은 장

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이다. 도는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단양IC 연결 및 지방도356호선, 국도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폭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양촌·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은행 열매 채취 30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일원에서 구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익취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동수확기를 활용, 채취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7일 중과차 수출단지 일대 불법 차량 단속

무관 차량 견인·도로 방치 차량 강제 폐차 처리

인천 연수구, 야간순찰도 강화

인천 연수구가 중과차 수출단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함께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구는 1~17일 중과차 수출단지 주변 육원동과 동춘동 일대에서 주정차 위반, 무단 방치, 번호판 불법 사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차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말소된 무관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된다. 또한 사유지나 도로에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폐차 처리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번호판 부정 사용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 차량 단속은 연수구 차량관리원과 교통행정과, 연수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정차 위반 단속과 무관 차량 점검, 노상 주차장내 장기 주차 차량 견인, 불법 운영 현장 대응 등의 역할을 분담해 진행한다. 특히 무관 차량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야간에 이동하는 사례

가 빈번해 야간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고강도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에도 힘을 실기로 했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은 육원1·2동과 동춘1동에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나 통행 불편 구간에는 시선 유도봉과 '블라드'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추석 연휴 임시주차장 34곳 무료 이용 (3~9일)

금천구, 누리집 확인 당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휴 동안 학교 주차장(운동장)과 민간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차장 개방 시설은 ▲학교 6곳 188면 ▲공영주차장 7곳 360면 ▲공공기관 9곳 394면 ▲교회 및 집합건물 등 민간시설 12곳 712면, 총 34곳 1652면이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마다 개방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어 이용하기 전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각 시설에 게시된 현수막을 통해 개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량으로 제한된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차처 2개 이상을 반드시 남기고, 시설별 개방 종료시간 이전까지 출차를 완료해야 한다. 개방 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 조치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귀성객들 모두 주차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명준 기자 ymj@siminilbo.co.kr

군포시도 유료 공영주차장 31곳 무료 개방

경기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1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9일부터 8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추진되며 대상은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42곳 유료 공영주차장 중 월정기 전용 주차장 11곳을 제외한 31곳이 해당된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정책은 매년 명절 연휴 기간마다 시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도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 주차 편의 증진 등 다

양한 효과와 기대되고 특히 주차비 부담 없이 도심 상업지역 등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은호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을 방문하는 분들과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자하는 마음으로 지역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포=송은국 기자 ygs@siminilbo.co.kr

대형차량 움직임 알린다... '서초형 AI 횡단보도' 8개 확대

區, 내년 전 지역 추가 설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서래마을 입구와 삼호가든소방사거리 등 6곳에 8개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형 AI 횡단보도'는 대형차량 등의 움직임을 교차로 50m 밖에서 인지하고 보행자에게 알리는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2022년 7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후 복잡한 교차로와 운전자의 혼란을 줄여 보행자가 직면한 가운데 실질적인 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해 하반기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전국 최초

의 AI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구는 이후 교육개발원 입구, 서초3동사거리, 사당역사거리, 남부터미널사거리 등으로 AI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2024년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과제로 선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현재까지 총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에는 양재시민의숲역, 방배역사거리에도 설치하는 등 AI 횡단보도를 서초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륜차 난폭운전과 차량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역내 주요 도로 3곳

에 후면단속 카메라 4대를 새롭게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도 나설 예정이다.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기존 전면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 위반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고 특히 안전도 미흡한 단속도 가능해 시민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형 AI 횡단보도'는 서초구가 선도하는 안전한 스마트 도시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접목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이달 말부터 도고면 DRT 운행

아산시, 13개 마을 설명회 개최

충남 아산시가 도고면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도고면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말 도고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될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의 시범 운영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고면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는 지정된 노선 없이 지역내 정류장을 기반으로, 이용자 호출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맞춰 운행된다. 특히 마을회관과 도고지역 주요

관광지를 가장 정류장으로 추가 지정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운행 대상 지역은 도고면내 마중택시 운영지역을 제외한 13개 마을이며, ▲도고아트홀 ▲아산노예박물관 ▲용기정지체험관 ▲아산 도고전원 ▲파라다이스 스퀘어 ▲도고세계꽃식물원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고지역 관광객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난 9월3일부터 23일까지 도고면 13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장회의에서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취지와 이용 방법을 공유했다. 아산=박영준 기자 pms@siminilbo.co.kr

구로구, 청소상황실·기동반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집중 관리

1~9일 청소추진계획 시행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2025년 추석연휴 청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소상황실과 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로, 전차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는 중심으로 청소인력을 배치해 집중 대응한다. 추석 연휴 총 중 924명의

청소 인력이 투입된다. 청소상황실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운영되며, 도로 청소차 17대가 상시 순찰하며 쓰레기 수거와 노면 청소를 병행한다. 또한 전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집중 청소를 실시한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요일별로 제한된다. 월·수·금 배출지역은 오는 6일 배출이 금지되며, 8일 오후 8시 이후 배출할 수 있다. 일·화·목 배출지역은 5일 배출이 금지되고, 7일 오후 8시 이후 배출이 가능하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장을 탈바꿈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했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